

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Tel. 02-722-7944

Fax. 02-723-7215

△ 수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 발신 : 여성환경연대

△ 발송일 : 2018년 5월 31일 (금)

△ 매수 : 총 6쪽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1. 여성건강에 관심가져주시는 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무상(공공)생리대 공약을 확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선거 후보자의 여성건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합니다.
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선거 공약에서 실종된 무상생리대 정책은 어디에 있나

- 교육감 후보 61명 중 초중고교생 생리대 지원 약속 후보 단 3명에 불과
- 광역자치단체장은 5명의 후보만 생리대관련 공약 발표
-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여성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정당공약으로 제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행동)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무상(공공)생리대 관련 공약 유무를 확인한 결과, 시도교육감 후보 61명 중 단 3명, 광역자치단체장 71명의 후보 중 단 5명의 후보만이 생리대 관련 공약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7%, 교육감 후보 5%만이 생리대 관련 공약을 제시 한 것으로,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무상(공공)생리대 공약은 실종된 상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생리대행동은 각 후보들의 홈페이지, 블로그, 정당 정책공약을 바탕으로 후보들이 발표한 여성, 교육, 청소년 복지 공약에서 생리대 관련 공약 유무를 파악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후보가 속한 정당이 관련 공

약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후보가 이를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은 경우는 관련 공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였다. 정의당과 민중당, 녹색당은 여성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 하였다.

교육감 후보들,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 공약 실증상태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안전한 생리대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생리가 학습의 단절이 아니고, 가난을 증명해야 생리대를 받을 수 있는 모멸의 경험이 아니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에서는 안전한 생리대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서 안전한 생리대까지는 나아가지도 못하고, 생리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생리대 공약을 발표한 교육감 후보는 전북도 김승환 후보, 이미영 후보가 초중고 여학생 전원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전라남도 장석웅 후보가 정책협약의 과정에서 생리대 제공을 언급한 것이 전부다. 세종시 최교진 후보, 충남도 김지철 후보가 이전 교육감 재직시절 저소득층 지원, 혹은 보건실 비치의 형태로 일부 생리대를 지원한 적은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리대 지원 관련 공약을 찾아 볼 수는 없었다.

광역지자체장 후보들도 여성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이나, 공공시설 생리대 비치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단 5명에 그친다.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김종민 정의당 후보와 신지에 녹색당 후보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지원공약을 발표하였고, 광주시 나경채 정의당 후보, 경기도 홍성규 민중당 후보가 학교와 공공기관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비치하겠다고 하였으며 충북도 박경국 자유한국당 후보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친환경생리대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공공생리대를 여성들에게 제공하라.

두 손에 다 차지도 않는 수의 후보들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을 약속했는데도 일부 언론은 공공생리대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책적 의미를 깎아 내리기 급급하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때때로 여성들에게 생리는 일상을 단절시키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공공생리대는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학습권의 문제이다. 적어도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어떤 여성도 불편함 없이 생리대를 쓸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생리대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비싸다. 한 보도에 따르면, 7년 동안 생리대 가격인상이 140회나 인상되었다. 물가상승률의 3배 수준의 상승이다. 여성들은 한 달에 최소 40여개의 생리대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한 공공생리대 지원은 여성들에게는 인권과 존엄의 문제며 청소년들에게는 학습의 지속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생리대 유해물질, 생리대 생산 기업의 독과점, 가격 문제 등 여전히 생리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지방선거 후보자의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미비하다는 점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실망한다. 동시에 요구한다. 안전한 생리대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 여성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생리대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 별첨: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 생리대 공약 현황

2018년 5월 30일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1. 광역자치단체장

- 71명의 후보 중 생리대관련 공약 발표 후보 총 5명
- 7% 후보, 생리대 공약 발표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 애국당	녹색당	우리미 래	친박연 대	무소속
서울시장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	김종민 청소년 안심생리 대 무상 지원	김진숙	인지연	신지예 청소년 안심생리 대 무상 지원	우인철	최태현	
부산시장	오거돈	서병수	이성권		박주미						이종혁
대구시장	임대윤	권영진	김형기								
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문병호		김응호						
광주시장	이용섭		전덕영	-	나경채 학교 공 공시설물 생리대 무상비치	윤민호					
대전시장	허태정	박성호	남충희	-	김윤기						
울산시장	송철호	김기현	이영희			김창현					
세종시장	이춘희	손아영	허철회								
경기도지사	이재명	남경필	김영환		이홍우	홍성규 학교 공공 기관 생리 대 무상비 치					
강원도지사	최문순	정창수									
충북도지사	이시종	박경국 여성청소 년 친환경 생리대 무 상지원	신용한								
충남도지사	양승조	이인제									차국환 (코리아)
전북도지사	송하진	신재봉		임정엽	권태홍	이광석					
전남도지사	김영록		박매호	민영삼	노형태	이성수					
경북도지사	오중기	이철우	권오을		박창호						
경남도지사	김경수	김태호	김유근								
제주도지사	문대림	김방훈	장상철					고은영			원희룡

2. 교육감

- 61명의 후보 중 생리대관련 공약 발표 후보 총 3명
- 4% 후보, 공약 발표

	후보1	후보2	후보3	후보4	후보5	후보6	후보7
서울	조희연	조영달	박선영				
부산	함진홍	박효석	김성진	김석준			
대구	김사열	강은희	홍덕률				
인천	도성훈	고승의	최순자				
광주	이정선	장휘국	최영태				
대전	성광진	설동호					
울산	권오영	장평규	박흥수	노옥희	구광렬	정찬모	김석기
세종	최교진	송명석	최태호	정원희			
경기	배종수	송주명	임해규	김현복	이재정		
강원	신경호	민병희					
충북	김병우	심의보	황신모				
충남	명노희	김지철	조삼래				
전북	이재경	서거석	김승환 초·중·고 여학생 전원 생리대 지원	황호진	이미영 초·중·고 여학생 생리대 전원 지원		
전남	고석규	오인성	장석웅 학생들에게 생 리대 제공(찰화 "교육의제 정책 협약" 일환)				
경북	안상섭	임종식	이찬교	문경구	이경희		
경남	이효환	김선유	박중훈	박성호			
제주	김광수	이석문					